

4-14. 2001년 단감의 병해충 방제 현황

박두상, 이규철¹, 강창현¹, 박정규¹

경상남도농업기술원 단감시험장, ¹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

단감을 포함한 감의 재배면적은 2000년 현재 30.8천ha로서 사과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뿐만 아니라 매년 그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년 후에는 사과 재배면적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 아직 단감의 병해충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이며, 따라서 방제체계도 아직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. 본 조사는 수출용 단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과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제력을 작성하기 위하여, 우선 일반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현황을 조사하였다. 조사지역은 경남의 창원, 진주, 김해, 사천과 전남의 순천 지역으로서 총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.

2001년 9월까지 총 약제 살포횟수는 평균 8회이었고, 살균제는 평균 7회, 살충제는 평균 6.5회 투입되었다. 월별로는 6,7,8월에 살균제는 5.4회, 살충제는 5.3회 투입되어, 재배기간 중의 거의 모든 약제 살포가 이 3개월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병해충 방제에 사용된 약제의 종류는 살균제 19종, 살충제 24종으로 조사되었다. 살균제 종류별로 사용한 농가수를 보면 6월 중에는 mancozeb>carbendazim>thiophanate-methyl 순이었고, 7월 중에는 thiophanate-methyl>mancozeb>benomyl=fenarimol 순이었으며, 8월 중에는 benomyl>mancozeb=thiophanate-methyl 순이었다. 살충제 종류별로는 6월 중에는 fenitrothion>cyfluthrin=methidathion=deltamethrin 순이었고, 7월 중에는 deltamethrin>cyfluthrin=fenitrothion, 8월 중에는 deltamethrin이 많이 살포되었다.